

관세폭탄에 유가까지 들썩...광주 산업계 전전긍긍

중등 분쟁 호르무즈해협 봉쇄 땀 물류비 상승 등 수출 업계 심각한 타격
자동차·대형가전 수출하는 삼성·기아 등 관세에 운송비 인상 이중고
광주 경제부시장 빨리 임명하고 ‘경제위기지역’ 지정 대책 서둘러야

금호타이어 화재, 위니아전자 파산, 미국발 관세 타격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광주 산업계가 이번엔 중동발 국제 유가 불안까지 덮치면서, 역대 최악의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선 이란-이스라엘 충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 경제 양대 축인 기아와 삼성전자는 물론 지역 수출업체 대부분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정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광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일 대비 L당 2.99원 오른 1619.16원이다. 최근 국제 유가는 이란의 보복 가능성과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 대응 등이 맞물리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원유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해상 물류비용 급등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가전·금형 등의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기반 지역인 광주는 삼성전자 냉장고 등 해상 운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부피가 큰 수출 제품이 대부분으로, 연료비와 물류비가 오른다면 지역 산업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산업계의 설명이다. 최악의 상황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내 수입 원유의 70% 이상이 지나는 핵심 운송로이자 유럽을 잇는 중요한 해상로로,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비용과

생산 단가가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는 일단 국제 유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납품 단가와 공장 가동률 등을 점검·대비하고 있다. 또 정부와 광주시를 상대로 여러 경제 약재가 걸린 광주를 ‘경제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유가 안정화 대책과 긴급 경영 자금 등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잇따른 지역 경제 약재에 더해 유가 파동까지 겹치면서, 광주 산업계가 더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하소연이다. 광주 경제계 안팎에선 한달 넘게 공석인 (문화)경제부시장을 하루빨리 선임하고, 위기의 지역 경제를 살려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국제 유가의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이 발생하면 지역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과 생산 단가의 상승, 원자재 공급 불안 등 직접적인 경영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며 “미국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물류비 증가는 광주 산업계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회장은 이어 “정부와 광주시 등 관계 당국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유능할수록 떠난다”...한국 AI 고급인력 해외유출 심화

대한상의 SGI 분석

성과 중심 보상 체계로 전환 제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국내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발표한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두뇌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뇌수지는 대한상의 SGI가 새롭게 제안한 개념으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제 흐름의 순수지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 1만명당 인공지능(AI) 인제 순유출은 -0.36명으로,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과 대조를 이룬다. SGI는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2021년에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며 “두뇌수지 적자도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1년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이며, 순유출입 순위는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SGI가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 국내 과학 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포인트)는 독일(+0.35%포인트), 중국(+

0.24%포인트), 미국(0%포인트), 일본(-0.14%포인트)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뒤처진 수준이다. SGI는 인제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꼽으며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2억1483만원이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1인당 3억40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상의 제주시 ‘미래내일일경험’ 합동설명회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제주도에서 ‘미래내일일경험 및 일자리 지원정책 제3차 합동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이날 오후 3시 제주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미래내일일경험 호남권지원센터 운영사업의 하나로 미래내일일경험 사업과 유관기관 일자리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광주상의와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제주권 일자리 지원사업), 제주여성인력

개발센터(여성취업연계지원사업)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건설경기와 관광산업 침체가 지속돼 지역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제주권역 기업들이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상의가 운영 중인 미래내일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는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청년들의 일 경험 확산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5월 자동차 내수판매 친환경차, 내연차 첫 추월

테슬라 ‘모델Y 주니퍼’ 신차효과
BYD 두달 연속 500대 판매 ↑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 우려 등으로 지속됐던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상황이 개선되면서 위축됐던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는 신호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 품목관세’에 더해 추가 관세 부과 우려가 제기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20% 넘게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발표한 ‘2025년 5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5월 한국의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4만1865대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0.4% 증가했다. 내수 판매에서 친환경차는 7만 3511대로 작년보다 39.0%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5만614대)가 작년 대비 31.4%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끈 가운데 전기차(2만1445대·60.3% ↑)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1360대·

115.9% ↑) 판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5월 친환경차가 내수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8%로, 내연 기관차(6만8354대·48.2%)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모델Y 주니퍼’ 신차 효과 등으로 작년보다 57.7% 증가한 6570대를 판매하는 등 수입차 바람이 거세다. 주니퍼는 5월 내수 판매 차량 5위에 올랐다. 중국의 BYD도 전기차 ‘아토3’ 인도를 시작한 4월 543대에 이어 5월에도 513대를 판매하며 두달 연속 500대 이상 판매를 이어갔다. 전체 내수 시장에서도 수입차 판매 증가세는 눈에 띈다. 올해 1~5월 누적 판매 기준으로 현대차 판매는 작년 동기 대비 6.4%, 기아는 1.6% 각각 증가한 데 비해 메르세데스-벤츠(13.7% ↑), BMW(9.6% ↑), 포르쉐(42.8% ↑), 넥서스(18.4% ↑), 아우디(43.2% ↑) 등 수입 브랜드의 판매는 증가했다. 5월 자동차 수출은 작년보다 4.4% 감소한 62억 100만달러로, 4개월 연속 60억달러를 초과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소상공인들 “‘노쇼’ 법 사각지대 보완해 달라”

소상공인들이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예약부도) 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을 올리는 노쇼 사기 근절을 위해 법정부적인 대응과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8월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 법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자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와 피해자 환급 절차 규정에 노쇼 사기가 제외된 실정으로 소상공인들은 피해금 회수는커녕 사기 계좌 동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적 사각지대를 노리고 파고드는 노쇼 사기는 가뜰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등쳐먹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경찰은 노쇼사기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또 “정지권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50.30	(+3.64)
↓ 코스닥	775.65	(-1.61)
↓ 금리 (국고채 39년)	2.448	(-0.035)
↓ 환율 (US D) <오후 4시 54분 기준>	1363.05	(-0.75)

일상복 된 아웃도어

광주신세계 브랜드

기능성 일상복 진출 활발

광주신세계에 입점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다양한 일상복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무더위와 폭우 등 이상기후 심화로 소비자들의 기능성 일상복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다양한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잇따라 일상복을 선보이면서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본관 7층 ‘디스커버리’ 매장에서는 일상복과 아웃도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프레시벤트 트레이닝 반팔 아노락’을 전면에 진열했다. 해당 제품은 기능성 냉감 소재로 만들어져 우수한 착용감을 갖췄다는 특징이 있다. 디스커버리는 2012년부터 일상복 영역으로 의류 카테고리를 지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 일상복 시장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스노우피크’와 ‘디오디’도 여름시즌을 겨냥한 일상복 출시에 나섰다. 광주신세계 본관 7층에 위치한 스노우피크 매장에는 캠핑은 물론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루트 스탠드백 바람막이’를 최신상품으로 전시



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바람막이는 뛰어난 신축성과 발수가공 기능이 장점이라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사진>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에 지난 2월 신규 오픈한 디오디는 캠핑용품의 노하우를 접목해 카키 등의 질은 컬러를 활용한 차별화된 스타일의 일상복

으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앞으로도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일상복 진출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광주신세계를 찾아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인구감소·고령화에...25년 뒤 GDP 대비 연금·의료비 부담 2배로

한은 인구·취업자 추세 전망 보고서
성장률 1인당 GDP에도 하방 압력

오는 205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보다 2배 많은 2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고용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추세 취업자 수’를 자연실업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 즉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경기 중립적인 취업자 수 규모로 정의하고 이를 추정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중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약간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미국 관세정책 여파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돼 올해 고용 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점차 둔화다가 2032년께 음수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더라도, 실제 취업자 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2030년께부터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2050년 취업자 수 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줄면 GDP 성장률이 둔화 압력을 받는다. 취업자 수 감소는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 투입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2030년부터 노동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고, 2050년이 되면 GDP 성장률은 자본 투입과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더라도 0% 중반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개인 후생 지표인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진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되는 2030년부터는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추정 결과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2025년 현재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 수준까지 2배로 확대된다. 한은은 낙관 시나리오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이번 분석에서 전제해 것보다 2050년까지 4%포인트(p) 높아지는 경우도 분석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폭만큼 추가 상승한다고 본 것이다. 그 결과 취업자 수 둔화 시점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 수는 2024년 대비 95%까지 높아진다. 또한 1인당 GDP 성장률은 2025~2050년 중 연평균 0.3%p 오르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p 완화된 것으로 추정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